



〈백남준〉 (그림출처 : 백남준 공식 홈페이지 <http://www.paikstudios.com>)

과 학기술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백남준의 타계 소식은 풀지 못했던 하나의 딜레마가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듯한 느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작품세계를 이루는 비디오아트라는 분야는 여러 예술 중에서도 과학기술적으로 가장 하이테크에 속하는 매체를 이용한 것이었지만, 막상 그 작품들 자체는 너무나 난해했기 때문이다. 그가 즐겨 채택했던 재료인 TV모니터와 비디오 자료들은 그 분야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설치하고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손재주 있는 중·고생에게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작 어떤 영상을 쓸 것이며, 또 모니터의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그만의 창조적인 감각을 따라가지 못했다. 아니, 따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진정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거장의 반열에 올랐던 위대한 아티스트 백남준의 삶과 예술 세계를 간단히 돌이켜 본다.

21세기 과학 예술의 선구자 백남준

글 | 박상준 _ 과학칼럼니스트 cosmo@chollian.net

미학도에서 전위음악가로

백남준은 1932년 서울 종로에서 매우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그 시절에 이미 자가용이 있었다고 하니 생활 수준은 지금의 재벌들과 별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우며 수송초등학교와 경기중학교를 다닌 그는 1949년에 홍콩의 영국학교인 로이든스쿨로 유학을 갔고, 이듬해 귀국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가족들과 함께 다시 일본으로 이주했다. 1952년에 도쿄대 교양학부 문학과에 입학한 그는 미학과 미술사학을 공부한 뒤, 50년대 중반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 뮌헨대와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했다.

그가 독일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은 이른바 '전자음악'이었다. 전기 회로를 통과한 신호는 스피커를 통해 우리 귀에 들리는 가청주파수로 변환되는데, 이 '전자음향' 들이 단순히 잡음이 아니라 다듬기에 따라서 '음악' 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당시에 막 태동했던 것이다. 그 즈음 독일에서는 전자음악의 실질적인 창시자인 슈톡하우젠이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그의 활동에 자극을 받아 음향장비가 잘 갖추어진 방송국과 대학 등에 전자음악 스튜디오가 잇달아 개설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백남준이 당시 전자음악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는 다섯 명만이 선택될 수 있었던 스튜디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그건 자신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항상 직설적이고 거침없었던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이리했다. "일본인이 들어오면 금방 흉내 낼까봐 꺼렸고 대가들도 경쟁이 되니까 싫어했지. 나는 모르는 나라 한국에서 온 바보나 천치로 여겨기 때문에 안심하고 끼워 주었어."(2000년 재미 작가 임혜기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백남준은 자신이 한국인임을 당당히 내세우며 살았는데,



〈TV부처〉 1974년작(그림출처 : 백남준 공식 홈페이지)

그때는 한국이 별로 알려지지 않아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덕도 보았다는 얘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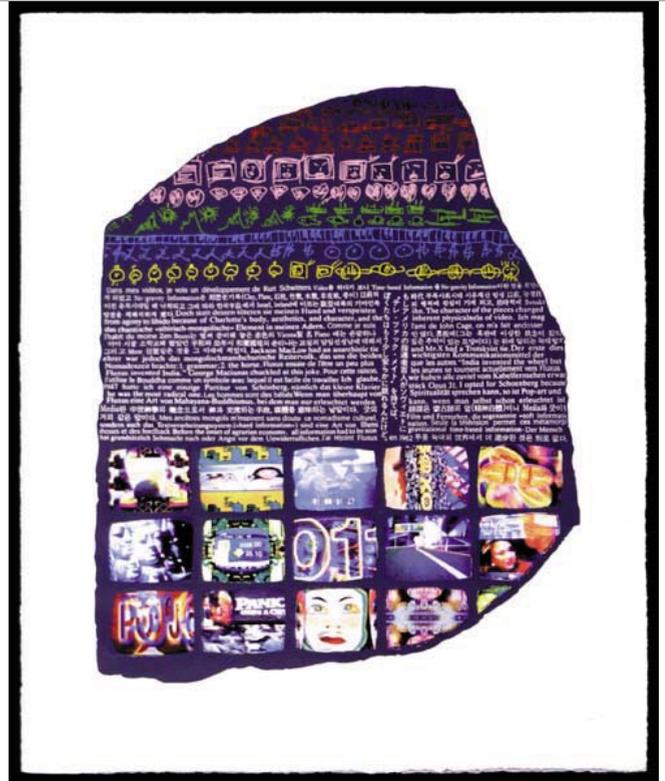
비디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다

그가 음악에서 미술, 정확히 말하자면 비디오아트쪽으로 눈을 돌린 것은 1963년경의 일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자음악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기도 했고, 또 나이가 서른을 넘으면서 뭔가 '히트' 작품에 대한 욕심도 나던 차에 새롭게 등장한 비디오라는 매체에서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마침 그는 전자음악을 하느라 신호발생기(제너레이터)를 여덟 대나 갖고 있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걸 스피커에 연결하면 전자음악이 되지만 TV모니터에 연결하면 '전자미술'이 되는 것이다.

비디오아트는 사실 우리가 간단히 실험해 볼 수 있다. 자석을 브라운관 방식의 TV모니터에 가까이 대어 보면 색상과 이미지의 변형 및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원래 미술 공부를 했던 백남준으로서는 청각이 아닌 시각적 매체인 비디오에서 어렵지 않게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 뒤 갖가지 전위적인 퍼포먼스와 결합된 그의 비디오아트는 곧 세계적인 각광을 받게 되었고, 1984년 새해가 밝은 첫날에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 위성 중계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비디오작품으로 명실 공히 현대 예술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한다. 필자도 고교생 시절 이 작품을 TV로 밤새워 보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당시의 유명한 팝음악 스타들도 많이 등장했고 신기한 컴퓨터 그래픽도 나와서 그의 비디오아트처럼 난해하기보다는 꽤 재미있었다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백남준의 명성이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한국내에서는 잘 체감하기 힘든 면이 있다. 세계 미술계의 흐름에 정통한 이들은



〈KEY TO THE HIGHWAY〉 1995년작. 고대 언어 해독의 실마리가 되었던 로제타 스톤을 본 떠서 21세기 전자고속도로를 이해하는 열쇠를 형상화했다(그림출처 : Carl Solway Gallery 홈페이지).

백남준이 진정한 천재이며, 한국이 낳은 예술가(넓은 의미의 미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로서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 이외의 어느 누구도 국제적인 벽을 뚫지 못하다는 것이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큐레이터인 존 헨하르트는 백남준을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이라며 그의 비디오아트가 '르네상스의 원근법이나 사진술의 발견에 버금가는 미술사적 혁명'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백남준은 생전에 '2012년에 카네기홀에서 생애 마지막으로 큰 공연을 가지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2006년 1월 29일에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그가 더 보여줄 수도 있었던 가능성들이 일찍 사라진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

과학기술과 결합된 인간 사회 표현

저명한 과학자이자 대중과학의 스타였던 칼 세이건은 '콘택트'라는 SF소설도 쓴 바 있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천문학자 애로웨이 박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소음들에 혹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오묘한 신호가 들어있지는 않을까 생각한다. 그가 말하는 소음이란 기차가 철로 위를 지나갈 때 규칙적으로 나는 덜컹거리는 소리, 그리고 전파망원경에 포착되는 우주의 잡음 신호 등이다. 더 나아가 같은 순열이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 원주율이나 방송이 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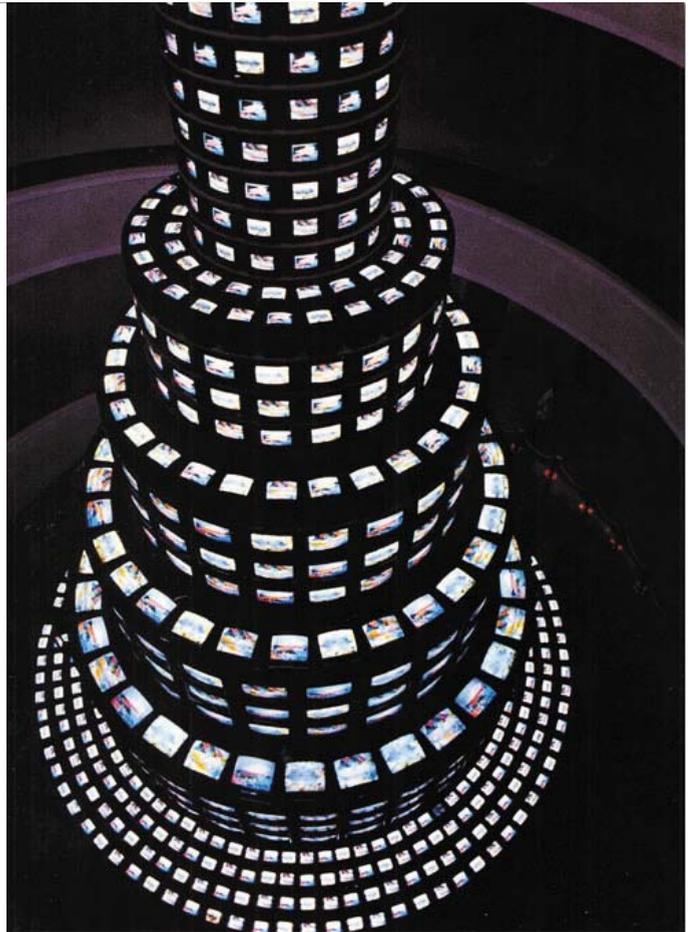
지 않는 빈 채널의 TV화면 같은 것에도 어떤 숨겨진 메시지는 없을까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비디오아트를 이해하려면 이와 같이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다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학기술 문명’ 그 자체를 익숙한 환경이 아닌 하나의 객관적인 심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예술의 분야 중에는 비디오아트 말고도 사진이나 영화처럼 과학 기술적 장비들을 매체로 채택하는 갈래들이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사진과 영화는 광학 장비만을 사용한다. 영상을 포착하고 보존, 투사하는 촬영, 현상, 인화 등의 여러 단계에 전기나 전자 신호가 필수조건으로 개입하지는 않는 것이다. 오늘날 널리 보급된 디지털 컴퓨터 장비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광학 장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는 보조 역할에 머무를 뿐이다.

그러나 비디오아트는 다르다. 비디오아트의 온전한 감상을 위해서는 TV모니터에 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전원 공급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TV모니터’라는 장비 자체가 이 독특한 예술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다. 그야말로 20세기 중반 이후의 과학기술적 환경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가 없는 예술 분야인 것이다. 회화나 사진, 영화가 세상의 풍경들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면, 비디오아트는 과학기술과 결합된 인간 사회라는 문명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비디오아트로 세상 풍경들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미술과는 달리 그 표현 방식에 이미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백남준의 작품들 중에서 비교적 유명하고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다다익선’을 예로 들어보자.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작품은 1003개의 TV모니터를 둥글게 쌓아 올린 지름 7.5m, 높이 18.5m의 거대한 탑 모양이며, 각각의 모니터에는 제각기 다른 내용의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다. 1003이라는 숫자는 개천절인 10월 3일을 의미한다고 하며, ‘다다익선’이라는 제목은 오늘날의 매스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그만큼 다양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은 오늘날의 문명사회를 표현하는 하나의 거대한 만물상처럼 보인다. 즉 개천절이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개념을 빌려 과학기술 문명사회의 등장을 새로운 하늘이 열린 것으로 표현했으며, 수많은 모니터들은 현대 사회와 문화의 복잡다기하고 현란한 스펙트럼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모니터들 중에는 고장 등의 이유로 영



〈다다익선 The More, The Better〉 1988년작(그림출처 : 백남준 공식 홈페이지)

상이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백남준은 그것도 작품의 일부로서 이해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사회에서는 이따금 소통이 일어나지 않거나 침묵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다다익선’이라는 제목에는 또한 백남준의 생각이 들어 있는 것 같다. 현대는 미디어와 소통의 경로가 차고 넘쳐 쓰레기 정보들도 범람하는 시대지만, 그래도 그런 다양성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혹시 그의 그런 생각에는 과학기술적 낙관주의도 포함되는 것일까?

이 작품은 1988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늘날 휴대폰이나 디카, DMB, PC, PDA 등으로 갈수록 세분화되는 미디어 기기들의 등장을 보면 실로 그 선견지명에 감탄하게 된다. 아마도 우리 세대 보다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비디오아트에 훨씬 더 익숙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즉 백남준은 20세기가 아닌 21세기의 예술을 시대보다 앞서서 미리 구현한 선구자였던 것이다. ㉔



글쓴이는 한양대 지구해양과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 비교문화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SF 및 교양과학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동아일보, 전자신문, 씨네21, 과학동아, YTN-TV, KBS 라디오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